

관리인직

“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베드로의 첫째 편지 4 장 10 절

I: 신앙 생활에 있어서 관리인직의 의미

II: 심오한 관리인직의 영성

III: 관리인직에 참여하는 이유는

1. 성서적이며
2. 풍부한 결실을 맺게하고
3. 현실적이며
4. 포괄적이고
5. 참여에 대한 어려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하며
6. 지속적이고
7. 능동적이기 때문입니다

IV: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Archdiocese
of Toronto



I: 신앙 생활에 있어서 관리인직의 의미

관리인은 주인의 재산을 잠시 사용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소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있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잠시동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삶 그 자체를 포함해서 하느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좋은 종이 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종의 개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가 놀랄 일은 아닙니다.

성서는 실제 용어가 사용되는지 상관없이 관리인직의 영성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사실 종, 제자, 사도-성서에서 가장 중요한-는 모두 관리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돌아오실 때 책임을 추궁당할 주님의 종입니다. 제자들은 주인으로 부터 받은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사도들은 그 분의 사명과 메세지의 관리인으로서 그 분을 충실하게 대표해야 합니다.

성서는 관리인직과 책임은 떼어 놓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루카 복음12장 41절-48절을 통해 우리들은 주인이 안계신동안 집안일을 관리하라고 맡긴 종과 같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 어떤 주인이 한 관리인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에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관리인이겠느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주인의 신뢰를 남용하며 주인이 더디 오려니 하고 자신이 맡은 남여 종들을 때려가며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여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주인은 기대하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못하는 시간에 돌아올 것이다” .

주인이 다시 오실것이라는 가능성은 신자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들은 기쁜 희망속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신약 시대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에 찬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주들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전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나는 날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맡았던 관리인직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재능, 보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평화롭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복음은 주인이 돌아오시는 것이 임박했음을 되풀이해서 들려줍니다.

관리인직에 대한 가장 유명한 비유는 마태오 복음 25장 14절-30절에(루카 복음 19장: 11절-27절도 보십시오) 있는 세명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비유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이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주인과 셈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유에서 사용된 고대 화폐의 단위인 달란트는 현대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 재능 ” 으로서 비유에서 칭찬을 받은 종의 경우처럼 개발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충성스러운 종은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유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인직은 창의성과 대담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막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삶의 끝에서 ” 저 사람은 많은 잠재력이 있었는데 ” 라고 듣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인 우리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진정한 감사와 함께 우리가 받은 선물보다 더 많이 불려서 돌려드리기 위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알차고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리인직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낭비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인직이 뜻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바로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 25장 31절-46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기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시간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리인직이며 우리도 똑같이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코 복음 10장 17절-22절)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어떤 부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 이 것이 좋은 관리직입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우리들 각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도 그가 가진 재물에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유감스런 일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로잡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더 큰 곳간을 만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나 자신에게 ‘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루카 복음 12장 13절-21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하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처럼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각자에게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궁극적으로 쓸모 없는 것들에 내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거나 보물을 모으기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도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시간을 더 보내기를 원치않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이 지구상에서의 여행을 위해 받은 것들을 어떻게하면 현명하게 사용하는 관리인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우선 순위의 한 예로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루카 복음 16장 19절-31절); 그 부자 남자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지구상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후회한 자케오(루카 복음 19장1절-10절)처럼 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삶의 비밀은 하느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여행하는 짧은 기간동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시간, 재능, 보물이라는

축복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조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하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자신들은 관리인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독성이 있는 자율성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포함해 어느 누구의 생명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성서의 첫 장들에서도 우리가 관리인이라는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하느님의 정원이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즐길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해 책임도 부여 받았습시다만 그것을 소유하지는 않았습시다. 슬프게도, 그들은 정원에 있는 모든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느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은 단지관리인이라는 것을 잊고 그렇게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만심이라는 환상에 속았습시다. 우리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소비자” 라고 부르는것은 흥미롭습시다. 지구상의 재물들을 그저 소비하는 사람들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소비가 탐욕스러운 삶의 특징이 된다면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들에 의해 소비되어지고 소유될 것입니다. 정당한 견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낫습시다. 우리가 잠시동안 즐겼던 시간, 재능, 보물은 관대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파견대의 자세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 관리인직의 정신을 더욱 완전히 성장시키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받은 풍부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초대 받았습시다. 그것들을 물어버리시나요, 혹은 마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에 집착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받은것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그럽게 나누시나요?

II: 심오한 관리인직의 영성

“ 관리인직 ” 이라는 말은 자주 묵시적으로 “ 십일조 ” 혹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 기금 조성 ” 이라는 암호를 띤 단어로 이해됩니다. 확실히, 만약 우리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제대로 된 정신을 가졌다면,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인 역할을 할 단호한 결심을 했다면, (사실 이것이 관리인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재정적으로 기여할 마음을 갖게되는데, 십일조를 내거나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도 바오로 사도는 모금에 대해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6장1절-4절;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8장-9절; 갈라디아서 2장-10절; 로마서 15장25절-2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꿈의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구서들을 지불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리의 단지 한 측면일 뿐입니다. 만일 더 심오한 측면이 (달란트와 시간의 관리직) 강조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가장 명백하지만 피상적인 측면, 즉 재물을 나누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관리인직 경험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직 목적을 위해 자금 모금 운동부터 시작한다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없게 되며 관리인직은 단지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남게됩니다. 그렇게 되서는 안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초대하는 대로 우리들의 삶을 모든 면에서 관대하게 살기 위해 헌신하게 되는 개인과 공동체로서 심오한 내적 쇠신을 의미하는 깊은 관리인직이 될때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리인직은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책임감으로 끝을 맺습니다. 관리인직은 가끔 감사의 태도로 불립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히 인식합니다. 우리가 최후에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인생이라는 짧은 통로를 지나가는 동안 시간, 달란트, 보물을 사용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애로운 사랑으로 생겨난 삶이외에는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모든 것은 선물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알고 있다면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에 더 보태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맡겨진 것들에 대한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너그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말씀하신 종들처럼 우리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입니다.

심오한 관리인직은 우선 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일이 중요한 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초기 로올라의 성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영신수련" 을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현명하게 자문해 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영적 전통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수도회, 수녀님, 수사님, 신부님들은 가난, 순결, 순종의 복음적 권고를 따르는 서약을 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충고에 의해 살도록 자신들을 형식에 구애시키지는 않았습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에 사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충고 모두 기본적으로 가난으로 귀추됩니다. 주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처리에 맡기며 우리들 자신들이 상황을 통달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관리만하고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내 삶에서 중요한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물질적 소유의 종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돈을 사용합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단체, 기관, 혹은 가족 각자의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 우선 순위를 밝혀 내는 훨씬 더 의미심장한 방법으로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엮여졌습니다. 내가 시간이라는 부족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은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루는 24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이 순간을 통과하면 과거가 되며 더 이상 내 시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어떻게 내 시간을 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의 관리인과 관련된 심오한 영적인 주제는 “ 현재 이 순간의 성사” 입니다. 내 인생은 지나가고 있는 각 순간에서 발견됩니다. 나는 단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순간을 하느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관리인입니다.

시간, 재능, 보물: 이 세가지는 감사의 정신과 함께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 각자가 자유롭게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추궁받을 때까지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한다면 심오한 관리인직이 주는 기쁨에 찬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본당과 교구들은 50여년 전부터 관리인직의 온전한 영성과 신학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자들의 삶에 깊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 미국의 주교들은 성서와 교회의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관리인직의 비전의 핵심 요소를 요약한 사목 교서인 "관리인직: 사도의 응답" 을 발표했습니다. 이 편지는 관리인직에 관련된 생각과 토론의 중심을 제공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관리인을 “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게 받고 소중히 여기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그것들을 잘 다루고 보살피면서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그것을 몇배로 불려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으로 정의합니다. 공동체가 의식적으로 관리인직 역할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선 이 편지를 공부하고 의논하시기를 권합니다. 관리인직은 삶의 방식이고, 미국 주교들이 그들의 편지에 말씀하셨듯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입니다.

국제 가톨릭 관리인직 위원회는 교구들이 관리인직의 원칙을 실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조언을 비롯해 공동체들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간행물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국제 가톨릭 관리인직 위원회 연례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관리인직에 의해 진정으로 변화된 개인과 공동체의 증언을 지켜보며 그들이 관리인직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본당들과 우리 교구 전체 공동체가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심오한 영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관리인직에 의도적이고 철저한 태도로 접근하며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완전한 상황에 그들의 통찰력을 적용시키며 제자들의 삶의 전체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완전한 참여를 강조하는 것을 신중히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재물에 초점을 맞추는 등 깊이 없고 피상적인 관리인직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위임하신 시간, 재능과 보물을 과약하여 관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심오한 관리인직 이외에는 다른 어느것에도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오한 관리인직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듯이 관대함과 총 참여의 정신을 가진 살아 있는 제자 정신을 포함하고 개인과 공동체적 회심을 의미합니다. 삶은 우리가 미지근한 제자들로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개인이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을 반영하는 것이 관리인직이며 기쁜 참여의 태도입니다.

III: 관리인직에 참여하는 이유

여기 관리인직 정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교구를 위해 귀중한 것이라고 믿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1. **관리인직이 성서와 살아 있는 크리스찬 신앙에 중심 테마인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이미 성서에 나타나 있는 근원을 지적했습니다.

2. **관리인직이 보람 있고 유익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교우들이 그들의 시간, 재능, 보물을 복음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번창합니다. 관리인직을 실행하고 있는 본당들은 자원 봉사에서의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동체안에서의 기도생활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우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가며 수도 사제직에 대한 소명이 증가하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번창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는 특히 사도직에 의하여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관리인직은 현실적입니다.** 관리인직을 실행하고 있는 탁월한 본당들의 예를 보여주는 한 비디오에서 한 신부님이 자신이 사목을 하고 있는 본당에서는 관리인직을 시작한지 30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동체의 헌신과 함께 꾸준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기계를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4. **관리인직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며 영구적이고 연속적입니다.** 관리인직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방법입니다. 만들어진 후 잠시 번영하고 감소되다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대체되는 영적인 프로그램과 모임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운동들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항상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한 프로그램에서 다음 프로그램으로 가는, 잠시 호황했다가 꺼져버리는 페턴과 비슷한, 다시말하면 문제가 많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관리인직은 제자 신분에 다가가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방향 전환을 포함하는 복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주제에 깊이뿌리 박고 있음으로서 우리 공동체에 믿음의 삶을 위한 안정적인 기초를 제공합니다. 관리인직은 유익한 활동과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개인은 물론 공동체적 회심을 요구합니다.

5. **관리인직은 공정한 참여와 책임의 분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관리인직은 본당 신자들이 더욱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어 맡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가끔 본당에서 해야하는 일들을 소수의 신자들만 하는 균형이 맞지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로를 하고 낙담을 하게 되면서 관여했던 모든 일을 중도하차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본당의 지도력이 소수의 헌신적인 사람들에 집중되고 다른 구성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건강하지 않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더욱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완전히 탈진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지 않고 나눔으로써 얻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신자들만 활동적이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마치 소파에 앉아 TV 만 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것같이, 수동적인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관리인직의 한가지 핵심적인 효과는 관대한 서비스를 위해 시간, 재능, 보물을 나누는데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본당 공동체의 완전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이것의 에너지를 그리스도가 현존하신다는 것을 이 세계에 더욱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밖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6. 관리인직은 포괄적이며 이미 존재하는 활동을 강화합니다. 관리인직은 제자임의 기반을 두고 설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도적 노력과 조직을 조화롭게 합니다. 복제하거나 대체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증진시킬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홍옥, 에메랄드가 꿀속에 빠졌을 때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더 밝게 빛난다고 말씀하신 프란시스코 드 살 성인에게서 발견된 신성함의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그가 말하는 요점은 자선이라는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성격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진정한 우리 자신을 더욱 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좀더 완전하게 관리인직의 정신으로 들어 갈 때에도 다양한 사도적 계획과 단체에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시간, 재능, 보물을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너그러움의 정신이 더욱 번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 모두 하느님이 내려주신 선물에 더욱 깊어진 감사의 정신을 강화시킬때도 자신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지만 더 환하게 빛이 납니다.

저희 대교구는 사도직 단체와 모임에 대해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앙 공동체 전체가 의도적으로 관리인직의 자세로 나아감으로써 각자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교구와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의 선물을 관리하는 충실한 종의 역할을 추구한다면 각자가톨릭 여성 연합, 나이트 오브 콜롬브스를 비롯해 사도직 단체의 유익한 회원으로 적극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 감사하는 태도” 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은 (사도직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와 성체 조배에의 열정을 더욱 강화시며, 복음화의 사명에 평신도들의 관여를 증가시키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수도자와 사제직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회 정의에 용기있고 효과적으로 헌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인직을 열심히 의식하고 의도적인 지향을 가지는 것은 모든 사도적 조직과 단체들이 번창하도록 도와 줄 것이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사람들을 도와 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인이 될것입니다.

저는 대교구 내의 모든 사도직 모임과 단체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리인직이 가지고 있는 테마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고 공동체 안에서 관리인직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7. 관리인직은 앞서서 주도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들여다 보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제자들로서 직면하고 있는 일의 막대함에 미리 겁을 먹게 됩니다. “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루카 복음 5장5절)” 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열두 사도들과 교회의 위대한 성인들이 그러셨듯이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처리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는 마음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사도 행전은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모든 분명한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인 이교도 제국속으로 자신있게 들어갔는지 보여줍니다. 관리인직안에서 우리들은 각자 세례 때에 받은 복음의 사명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초대하면서하느님의 선물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게 하도록 전념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열정을 돋우는 접근법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대교구의 모든 신자들을 활성화시킨 점점 더 많은 너그러운 에너지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이세상에 복음의 삶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혜택이 될까요. 관리인직은 그 에너지를 활성화 하기위한 조심스럽고 의식적인 노력이며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집중합니다.

IV:앞으로 나아가는 길

관리인직 정신은 이미 우리 본당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교로서 제 임무를 위해 본당들을 방문합니다. 신부님,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서비스에 그들의 시간, 재능, 보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며 감명을 받습니다. 마치우리에게 관리인직 정신이 부족한 것처럼 다른 곳에서 들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그토록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없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을 관리하는 너그러운 종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각 본당에 관리인직을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더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이 있고 그것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직은 기초를 이루는 비전의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사목적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사도의 임무와 함께 우리를 교회로부터 떠나간 사람들 혹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관리인으로서 시간, 재능, 보물을 독창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앙인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더욱 알차게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하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더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하며 그들에게 활기 찬 신앙인의 공동체에 대한 매력적인 예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사목 계획의 첫째 기둥은 활기찬 본당의 개발이며 이것이 관리인직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두번째 기둥은 모든 종류의 소명 의식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선물을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좋은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느님의 도움과 함께 결정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단 하느님이 우리가 제자로서 신앙인의 삶안에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경로를 발견하게 되면 관리인직 정신은 우리들의 소명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것입니다. 세번째 기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정의안에서 다가감으로써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종으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인 시간, 재능, 보물을 그들과 나눔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기둥은 문화를 복음화시키는 사명입니다. 만일 관리인직에 대한 헌신에 의해 형성된 제자의 삶이 우리 선물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면,생기가 넘치는 본당과 헌신적인 신자들은 특정한 소명을 따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 세속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속적 문화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줄 것입니다.

우리 대교구가 관리인직 정신속으로 더 완전하게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동안 제자 양성 부서에 있는 본당 활력과 관리인직 부책임자와 함께 일하기 위해 대교구의 관할구 관리인직 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본당들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교구내에 관리인직 개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제들의 피정의 하나로서 사제 연례집회 모임중의 하나는 관리인직에 헌신합니다. 관리인직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사제들의 지도력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넓은 세계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모이는 관리인직 모임에 잘 구성된 대표단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관리인직에 대한 근본 원리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을 기회로 활용하여 본당 공동체에 유익하게 소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우리는 이해와 반영의 튼튼한 기반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명심하며 우리가 처해있는 특정한 상황에

적합한 관리인직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 볼까요. ‘두 번을 잤다음 한 번만 자른다’ 는목수들이 사용하는 격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당들이 관리인직에 더 완전하게 들어가면서 대표단들을 여러가지 관리인직 모임에 보내고 제자 양성 부서와 함께 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제 가톨릭 관리인직 위원회의 참고 자료와 미국 주교 문서와 같은 자료들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 본당 사목자와 사목 위원회 관리인직에 대한 이해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본당의 특별한 상황에 그들이 통찰한 내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본당에 관리인직 육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본당 관리인직 위원회를 설정해야 합니다. 관리인직은 금융 문제보다 더욱 많은 사안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본당 재무 위원회가 아니라 신부님과 본당 사목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관리인직이 발전하면서 매년 본당은 관리인직에 의해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고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시간, 재능, 보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교구를 위한 사목 계획은 사도 행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선물에 힘입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속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고백성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행전속의 제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실한 증언자들이 되기위한 길을 추구합니다. 가끔 그 공동체 자체내에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심 깊은 신뢰에 힘입어 그것의 임무를 더 튼튼하게 합니다. 다시 자체와 문제에 기대지 않고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사회인 로마 세계에 복음화를 위해 다가갑니다. 그것이 사도 행전의 정신이며 사도의 증거에 의해 열매를 맺은 교회의 역사안의 모든 공동체 정신입니다.

제자로서 우리 사명에 대해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는 자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솔직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 약 20 퍼센트 정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신뢰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다가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존재의 경험과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 약 80 퍼센트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개인의 회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오 복음 4장 17절) 세례자 요한의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십니다 (마태오 복음 3장 2절). 하느님은 관리인직의 너그러운 태도의 반대편인 우리를 가두는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심은 자신에 초점을 맞출수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느님의 왕국을 효과적으로 현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은 모든 제자들이 여러가지 성사와 기록된 하느님의말씀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살아 있는 신앙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내가 최선을 다해 고백 성사와 신성한 성찬례의 경이로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의가 없거나 멀어져간 사람들을 자주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찬례나 화해성사를 비롯한 여러 성사들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일 사람들이 성사들과 신앙의 전체에 예수께서 주신 선물이 어떤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들은 교회의 문을 부수고라도 교회안으로 밀려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선물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나 반복됨으로써 진흙속에 묻혀질 수 있고 믿음의 활기찬 현실이 죄악과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인직이 활동하는 것을 통해 보았듯이 그것의 커다란 매력은 천주교 신자들이 보다 완전히 믿음의 삶의 전체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더욱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시작된 값진 선물들의 가치가 테러 행위, 낙태, 안락사와 사회 불평등이 만연된 이 사회에서 값싸게 평가되고 있음을 우리 각자 경이로움과 감사함과 함께 깨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작은 부분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가지 재능과 보물이 주어졌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총체적 현실과 말씀과 성사의 초자연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물을 너그럽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과 준다는 것은 오히려 더욱 풍성하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관리인직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많은 선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축복을 (종종 범주에 따라 시간, 재능, 보물로 분류됩니다) 내리셨다는 것을 각자가 깊이 깨닫도록 돕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꺼이 너그럽게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나누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리인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우리가 초대를 받았듯 본당안에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지 않고 세례와 견진을 통해 교회의 삶에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여를 증진하기 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채널 방향을 잃고 움직이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따라 할 수 있지만 그런것들은 어디로도 이끌지 못합니다. 신자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본당들은 단지 영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뿐 아니라 제공된 것을 다시 채우는, 값지고 보람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만일 그안에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불평만 하지 말고 모두 그것에 대해 무엇이든 하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정신에 따라 제자들로서 예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듯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활발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런 활기찬 공동체에서 한가지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각 개인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커다란 혜택을 주는 관리인직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혜택입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모든 일상이 판에 박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사라는 훌륭한 선물들조차도 예수님에 의해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기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주인에 대한 우리 각자의 헌신이 무디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에 매주 일요일 참석하기는 합니다만 수동성에 빠져 믿음의 경이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잃어 버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부활하신 구세주와의 경이로운 만남에 눈이 멀게되어 성찬례조차 단지 판에 박힌 일과가 될 수 있습니다. “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미사의 마지막 인사인 매우 놀라운 도전에 더 이상 흔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실행에 옮길 때 우리 각자의 삶은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 믿음은 받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현명한 속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그들이 하는 말보다는 그들에게서 솟아나오는 삶의 활력과 깊은 즐거움을 보고 그들이 제자임을 목격했기때문에 크리스찬 제자직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것때문에 관리인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것보다 진정으로 더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베푸는것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관리인직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어떤 마법의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로서의 우리들의 삶 전체에 퍼져있는 “ 감사의 태도” 인 우리 모두를 위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 Thomas Card. Collins

토마스 추기경 콜린스 토론토 대주교

2018 년 10 월 7 일